

##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 내 외국인수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양중<sup>1</sup>, 김원년<sup>2</sup>, 이충원<sup>3</sup>

### 요 약

각 지자체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정주환경의 개선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책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 내 외국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자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지역 내 외국인수의 증가에 분명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유치 백만불 당 12명 정도의 외국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용어 : 외국인 직접투자(FDI),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외국인 수.

### 1. 연구의 목적

저성장 시대 외투기업유치와 외자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유치는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외국인투자유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고,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도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에 외국인투자의 보호, 지원, 사후관리 등을 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정비와 획기적인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 외국인을 위한 지역 내 의료 및 교육환경은 외자유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책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의 외국인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외국인 정주여건의 개선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의 외국인 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논문도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역 외국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정책에 기초자

\*이 논문은 2013년도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sup>1</sup>314-14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 kyj0509@cdi.re.kr

<sup>2</sup>(교신저자) 339-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E-mail : kwn@korea.ackr

<sup>3</sup>339-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2511,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통계학과 박사과정.

E-mail : cnddnjs0393@korea.ac.kr

[접수 2015년 9월 20일; 수정 2015년 10월 17일; 게재확정 2015년 10월 20일]

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FDI의 효과는 크게 경제 부분과 세부적인 고용 부분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는 자본유치 효과, 생산성 증대 효과, 산업구조조정 효과,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자본유치 효과는 직접적이고 안정적인 해외자본을 장기적으로 국내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설비 및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현지 지역개발 효과는 물론 설비 운영 및 생산에 필요한 2차 투자를 수반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효과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Oh(2010)은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의 감소와 기업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는 FDI를 통한 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인적자원 및 무형자산, 노하우의 취득 및 국내 확산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기존의 네트워크 및 신뢰도를 기반으로 수출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조정 효과는 외국 자본 및 신기술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 촉진이 기술혁신과 효율성 추구 등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장의 재편 및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및 유지 효과는 그린필드(green field) 투자의 경우 직접 고용을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M&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자본 유입을 통해 파산에 따른 대량 실업방지 효과 및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다국적기업이 파산위기의 국내 기업을 인수하고 안정적으로 회생시키는 경우 고용 유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구조조정 및 생산 설비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FDI의 유입 자체가 소득의 불평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Kang(2008)은 FDI로 인해 지역 간 소득 불균형과 발전의 정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FDI의 효과도 상이함을 밝히고 있다.

Jeong et al.(2014)은 국제 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통해 1인당 GDP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Moosa(2002)는 FDI의 직접 효과를 KOTRA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본 확충 효과, 고용과 임금 효과, 생산성 효과, 기술 효과, 훈련 효과, 생산과 성장 효과, 무역효과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FDI의 성격이 다른 자본과 달리 안정적, 장기적인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Kang(2009)은 중국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FDI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Jeong, Kim(2009)은 다국적기업이 우수한 신용도와 자본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eldstein(1994), Graham, Krugman(1991), Alvarez et al.(2007) 등은 FDI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FDI의 고용효과는 작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Karlsson et al.(2007)은 FDI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Jo et al.(2008)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FDI의 효과를 측정하는 모형과 그에 따른 8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내 FDI 효과는 생산능력증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Yeon(2003)도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FDI는 산업 간 및 산업 내 모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Lee et al.(2014)은 외국인을 위한 지역 내 의료 및 교육환경은 외자유치를 위한 중요한 투자유인책으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

며, 수입국가, 수출시장, 업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이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Wheeler, Mody(1992)는 미국기업이 직접 투자한 42개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대상국의 시장 크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질, 산업화 수준, 과거 투자 수준 등이 미국 기업의 대상국에 대한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시설 입지 이론에서 중요 요소로 고려되었던 세율, 국가개방도 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Gastanaga, Nugent, Pashamova(1998)는 법인세율, 관세율, 자본 통제, 환율 왜곡, 계약 이행도, 국유화 위험도, 관료들의 업무 지연, 부패등과 관련한 정책변수와 기관변수를 이용하여 49개 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요인을 분석하였다. 투자 대상국의 경제 성장률, 법인세율, 부패의 정도는 투자 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밝히고 있으며, Barrell, Pain(1999)은 시장 규모, 일인당 국민소득, 투자 대상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수준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으며, 법인세율, 관세율, 수입제한 조치, 세제 혜택, 근로자의 임금수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치적 위험도에 대한 결과가 연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 방법, 투자 대상국가와 연구대상이 된 투자기간의 상이함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연구자료 및 방법

#### 3.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는 1993년~2013년까지 시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의 외국인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는 각 지자체가 목표로 하는 신고금액과 실제 도착한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제 정책추진이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고금액도 같이 다루고자 하며, 신고대비 도착금액의 비중은 평균 65.0%로 나타났다.

#### 3.2. 연구의 방법

패널자료(panel data)는 동일 표본으로부터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패널자료는 일정한 시점에 표본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에 표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을 갖는지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의 형태가 추가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국내 외국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사용된 자료가 시도별 횡

Table 1. Sca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Korea (unit: million US\$)

Year	Reported Amount	Arrival Amount
1995	1,970	1,410
2000	15,265	10,287
2005	11,566	9,622
2010	13,073	5,438
2011	13,673	6,642
2012	16,286	10,704
2013	14,548	9,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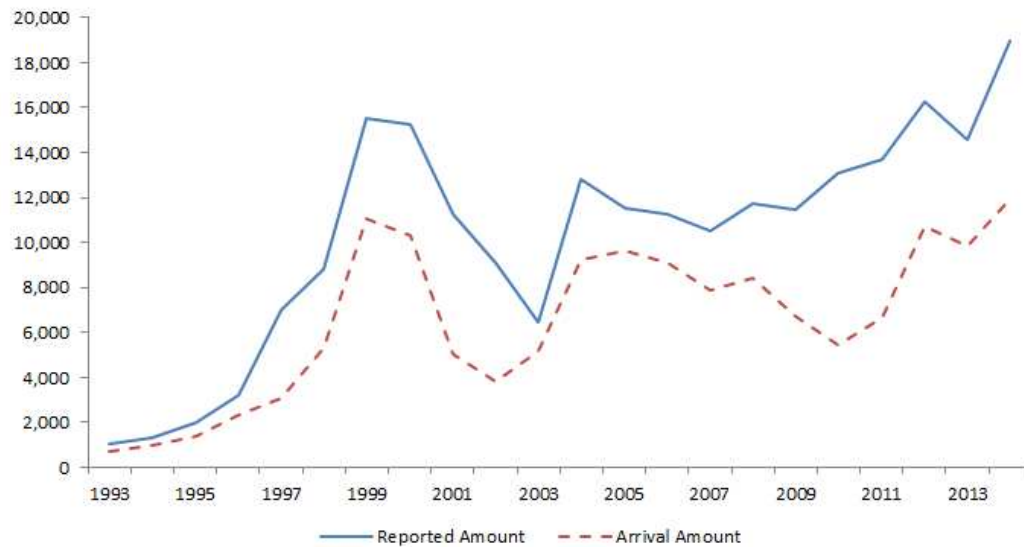


Figure 1. The tren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unit: million US\$)

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의 형태이기 때문에 패널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패널분석은 표본의 크기가 커져 자유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정의 효율성(eficiency)이 향상되며, 설명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추정량의 편의(bias)가 감소되고, 개별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여 생략된 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으며,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도가 높지 않아 두 변수 모두를 활용하였다.

Table 2. Description of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Note
DVAR	Number of Foreigner	Dep. Var.
FDI1	FDI Reported Amount	
FDI2	FDI Arrival Amount	
EVAR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dep. Var.
EVAR2	Number of unemployed	
EVAR3	Unemployment rate	
EVAR4	Employment rate	

## 4. 분석결과

### 4.1. 자료의 검정

시계열자료는 단위근을 가지는 불안정 시계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와 같은 시계열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OLS)을 하게 되면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변수는 차분(difference)하여 단위근을 제거하고 회귀분석을 해야 한다.

먼저 단위근 검정결과 DVAR과 EVAR1에서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에서는 단위근이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이처럼 경제변수의 시계열 자료들은 불안정할 수 있기 때

문에, 단위근을 갖는 경제변수들은 차분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변형시킨 후 회귀분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차분과정을 거친 경제변수들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변수들에 내재한 장기적인 정보를 상실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Table 3. Panel unit root test results

Variable	Statistic	Prob
DVAR	2.89897	0.9981
FDI1***	-5.8014	<.0001
FDI2***	-4.0424	<.0001
EVAR1	-1.48158	0.0692
EVAR2***	-6.4410	<.0001
EVAR3***	-6.5140	<.0001
EVAR4***	-4.4544	<.0001

Note: \*\* and \*\*\* deno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5% and 1% level, respectively.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경제변수들이 서로 공적분 관계에 있을 때이다. 따라서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을 통해 장기 안정성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적분 검정결과 모형1과 모형2의 변수들 간에 공적분관계가 나타나 관련 변수들이 비록 불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즉 단위근 검정결과 일부 변수가 불안정시계열이지만 변수들간 공적분관계가 성립하여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Johansen fisher panel cointegration tests

Model 1 : Reported Amount				
Hypothesized No. of CE(s)	Fisher stat. (from trace test)	Prob.	Fisher stat. (from max-eigen test)	Prob.
$r \leq 0^*$	791.7472	<.0001	357.0634	<.0001
$r \leq 1^*$	426.6042	<.0001	260.5541	<.0001
$r \leq 2^*$	215.4671	<.0001	116.8108	<.0001
$r \leq 3^*$	125.3383	<.0001	78.2869	<.0001
$r \leq 4^*$	76.4248	<.0001	59.0466	0.0012
$r \leq 5^*$	65.6564	0.0002	65.6564	0.0002
Model 2 : Arrival Amount				
$r \leq 0^*$	773.2000	<.0001	381.3000	<.0001
$r \leq 1^*$	465.6000	<.0001	299.6000	<.0001
$r \leq 2^*$	234.0000	<.0001	137.6000	<.0001
$r \leq 3^*$	125.1000	<.0001	88.2400	<.0001
$r \leq 4^*$	66.3200	<.0001	56.9900	0.0021
$r \leq 5^*$	47.8800	0.0204	47.8800	0.0204

\* denotes rejection of the hypothesis at the 0.05 level

#### 4.2. 분석결과

패널분석의 고정효과 검정을 위한 F 검정결과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을 설명변수로 한 분석에서 모두 고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랜덤효과 검정을 위한 하우스만(Hausman) 검정결과 랜덤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횡단면과 시계열 적 영향의 통제를 위해 two

way 고정효과 모형은 선택하였다.

Table 5. The result of fixed effect test

F Test for No Fixed Effects			
	Num DF	Den DF	F Value
Reported Amount	35	290	15.86
Arrival Amount	35	290	15.39

Table 6. The result of random effect test

Hausman Test for Random Effects			
	DF	m Value	Pr > m
Reported Amount	5	14.96	0.0105
Arrival Amount	5	14.51	0.0127

Table 7. Estimation results of panel analysis

	Variable	DF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Reported Amount	Constant	1	132133	76677.6	1.72	0.0859
	FDA1	1	11.5987	1.6996	6.82	<.0001
	EVAR1	1	102.861	4.7485	21.66	<.0001
	EVAR2	1	-260.02	71.4615	-3.64	0.0003
	EVAR3	1	8972.48	2883.3	3.11	0.002
	EVAR4	1	-3305.7	1270.3	-2.6	0.0097
	R-Square	0.9012				
Arrival Amount	Constant	1	105339	78745.1	1.34	0.182
	FDA2	1	12.243	2.3409	5.23	<.0001
	EVAR1	1	101.393	4.8844	20.76	<.0001
	EVAR2	1	-248.45	74.716	-3.33	0.001
	EVAR3	1	9616.1	2975.1	3.23	0.0014
	EVAR4	1	-2832.5	1303.7	-2.17	0.0306
	R-Square	0.8952				

신고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R-Square 값은 0.9012로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좋았으며, 5개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도별 외국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 경제활동인구, 실업자수, 실업률, 고용률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고, 상수항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도착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 R-Square 값은 0.8952로 모형의 설명력은 신고금액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역시 5개의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시도별 외국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금액, 경제활동인구, 실업자수, 실업률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고, 고용률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수항의 경우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횡단면 효과의 경우 11개의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시계열 효과의 경우 14개 변수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two way 고정효과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외국인수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실업자수와 고용률은 외국인수에 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1단위(백만불) 증가하면 외국인수는 11.6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이 1단위(백만불) 증가하면 외국인수는 12.2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Cross sectional effect

Variable	Reported Amount		Arrival Amount	
	Estimate	Pr >  t	Estimate	Pr >  t
CS1	-5054	0.4326	-2814	0.6714
CS2	-270364	<.0001	-260988	<.0001
CS3	-63447	<.0001	-63202	<.0001
CS4	-46964	<.0001	-45368	<.0001
CS5	-19229	0.017	-18957	0.0222
CS6	-57585	<.0001	-57956	<.0001
CS7	-17674	0.0183	-17848	0.0206
CS8	-108619	<.0001	-107844	<.0001
CS9	-328692	<.0001	-325101	<.0001
CS10	5419	0.4275	4547	0.5178
CS11	-49282	<.0001	-47994	<.0001
CS12	-14136	0.0748	-14646	0.0732
CS13	-22028	0.0003	-20911	0.0009
CS14	58462	<.0001	58111	<.0001
CS15	-9643	0.1781	-9910	0.179

Table 9. Time series effect

Variable	Reported Amount		Arrival Amount	
	Estimate	Pr >  t	Estimate	Pr >  t
TS1	-18856	0.0087	-21352	0.0038
TS2	-17255	0.0146	-19847	0.0063
TS3	-14719	0.0385	-17037	0.0198
TS4	-14780	0.0378	-16934	0.0206
TS5	-20105	0.0045	-20423	0.0051
TS6	-50362	<.0001	-52358	<.0001
TS7	-52434	<.0001	-53910	<.0001
TS8	-37244	<.0001	-37267	<.0001
TS9	-30322	<.0001	-29700	<.0001
TS10	-21687	0.0019	-22696	0.0016
TS11	-15037	0.0316	-17606	0.0143
TS12	-18962	0.0067	-20595	0.0042
TS13	-19625	0.0047	-21700	0.0024
TS14	-10290	0.1299	-12066	0.0844
TS15	-736	0.9132	-2848	0.6815
TS16	1234	0.8542	594	0.9316
TS17	365	0.9571	323	0.9632
TS18	1334	0.844	2458	0.7256
TS19	5053	0.45	5954	0.3884
TS20	-1039	0.8762	-1033	0.8805

## 5. 요약 및 결론

지속적인 경제위기, 저성장 시대의 도래 하에서 외국인투자유치는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경제발

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지역의 산업고도화와 고용창출에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도 외국인투자유치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고, 특히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도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정비와 획기적인 투자지원제도 개선, 기반시설 확충, 외국인투자지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 외국인을 위한 정주환경의 개선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책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주거, 의료, 교육시설 등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 내 외국인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지역 내 외국인 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자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는 지역의 외국인수에 분명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유치 백만불 당 12명 정도의 외국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개별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 및 교육시설 등의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시도별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설명변수 설정에 한계가 있었고, GRDP 등 거시적인 경제변수를 본 분석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외국인수의 증가를 직업별로 세분화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Alvarez, R., Grög, H. (2007). Multinationals as stabilizers? Economic crisis and plant employment growth, *IZA Discussion Paper*, No. 2692.
- Barrell, R., Pain, N. (1999). Domestic institutions, agglomera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urope, *European Economic Review*, 43(4-6), 925-934.
- Feldstein, M. (1994). Tax policy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NBER Working Paper* 4851.
- Gastanaga, V. M., Nugent, J. B., Pashamova, B. (1998). Host country reforms and FDI inflows: How much difference do they make?, *World Development*, 26(7), 1299-1314.
- Graham, E. M., Krugman, P. R. (199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Jo, Y. T., Moon, H. C., Suh, H. J. (2008). Evaluation and typ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effect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19(4), 23-50.
- Kang, M. J. (2008). Inward & outward FDI stocks and income inequality :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3)A, 1269-1280. (in Korean).
- Kang, M. J. (2009). An analysis of growth of exports and inward FDI in China,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5)B, 2679-2692. (in Korean).
- Kang, S. M. (2012). The impact of firm innovation on export: Focused on the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19(2), 21-33. (in Korean).
- Karlsson, S., Lundin, N., Sjöholm, F., He, P. (2007). FDI and job creation in China, *Working Paper Series*, 2007-2027.
- Kim, J. D., Kang, J. G., Kim, H. H., Kim, M. S., Lee, S. B. (2009). Economic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and some proposals on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KIEP Policy Analysis*, 09(04).
- Lee, Y. S., Park, Y. C., Lee, D. H. (2014). A study of comparative analysis regarding significance and satisfaction



- level of investment decision factor by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enterprises -Focused on FDI enterprises in Chungcheong,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1(6), 39-59.
- Oh, S. Y. (2010).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foreign investors equ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4)B, 2161-2174. (in Korean).
- Park, Y. C., Lee, C. Y. (2011).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1)B, 377-389. (in Korean).
- Wheeler, D., Mody, A. (1992).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3(1-2), 57-76.
- Yeon, T. H. (2003). *On the inter-industry productivity spillover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KDI Policy Analysis.

##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Number of Foreigner in Local Area<sup>\*</sup>

*Yangjoong Kim<sup>1</sup>, Wonnyon Kim<sup>2</sup>, Choongwon Lee<sup>3</sup>*

### Abstract

Local governments in Korea promote various policy, investment support system reformation and infra structure expansion for FDI invigoration. Especially,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for foreigner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incentive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us, many local government make an effort to creates better foreigner's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some researcher insist that there are no relationship between FDI invigoration and number of foreigner in local area. Consequently,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to local government about promoting residential environment reformation. The result from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ncrease in FDI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number of foreigner in local area, and that increasing FDI 1 million USD induces the increase of 12 foreign residents. As a result,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foreigner is necessary for FDI invigoration.

**Key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vestment attraction, Foreigner's residential environment, Number of foreigner.

---

<sup>\*</sup>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hungNam Institute 2013.

<sup>1</sup>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Economic Research,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101 Geumheung-dong, Gongju-si, Chungcheongnam-do 314-140, Korea. E-mail : kyj0509@cdi.re.kr

<sup>2</sup>(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Korea University Sejong Campus, 208 Seochang-ri, Jochiwon-eup, Yeongi-gun, Chungnam 339-700, Korea. E-mail : kwn@korea.ac.kr

<sup>3</sup>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jong-ro 2511, Sejong 339-700, Korea. E-mail : cnddnjs0393@korea.ac.kr

[Received 20 September 2015; Revised 17 October 2015; Accepted 20 October 2015]